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등록 및 후원문의 064-752-3300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1071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음력 9월 23일)

공공기관 이전 이달 중 발표… 결과 초미 관심

국토부, 국감서 11월 예고… 전략적 집중 배치 방침
지역 간 경쟁 치열… 제주도정 성장동력 확보 시험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이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제주로 이전하는 대상 기관과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제주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11월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홍 장관은 또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걸었다.

정부가 이처럼 이전 원칙을 천명하긴 했지만, 지역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유치 희망이 겹치는 지역들의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제주 뿐아니라 경남과 전북,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북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전북이 제주와 경쟁하고 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이후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현안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게 되는 성적표인 만큼 향후 제주도정 운영의 동력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5년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제주에 이전한 기관은 수도권으로 재배치된 재외동포청을 제외하면 총 8곳, 인원은 800여 명이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공항 진입로 열선 설치 사고 예방

상습 결빙 5곳 2210m 구간 22억여원 들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진입로 등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5곳 도로에 열선을 깔아 교통 사고를 예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열선 설치 대상은 ▷제주공항 진입로 700m ▷제주시 동문로터리 동쪽 640m ▷조천읍 와흘로 일원 400m ▷제주시 해안마을길 입구 70m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서쪽 400m 등 총 2210m 구간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교부세 22억원과 지방비 7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열선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열선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폭설에 대응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상습 결빙에 따른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겨울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시 고산동산 도로, 도남우체국 앞 도로, 서귀포시 기적의도서관 인근 도로 등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17곳에 열선을 설치했다. 또 이번 추가 시설이 마무리되면 열선 설치 도로는 총 22곳으로 늘어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우주센터 12월 공모 결과 나온다

전남 고흥-제주 '2파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특별시가 도전장을 낸 제2우주센터 건립지 최종 선정 결과가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오는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건립 후보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우주청은 기본요건을 남측 방향 해안선 확보 여부를 비롯해 약 170만평의 최소 면적과 발사궤도 확보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제주는 당초 정부가 공모한 육상 발사 대신 해상 발사를 역제안하며 공모에 참여했다.

제주도는 우주항공청이 건립지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발사 지점부터 반경 3㎞의 안전 영역 확보를 위한 주민 이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국방부가 고체 추진 발사체 발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귀포 중문 인근에서 해상 발사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서울=부미현기자



마라도의 가을 31일 대한민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억새밭 사이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가인권위원장 국정감사 발언 논란… 4면 / 9년여 방치 헬스케어타운 내년 다시 공사 시작… 5면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9일 제주썬호텔… 도민·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제주 여건 반영한 정책 설정·추진 방향 등 모색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9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가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제주의 여건과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과 제주도의회,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은민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기본사회 핵심 가치와 제주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제주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기본사회·인공지능(AI)·사회연대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형 기본사회 추진 방안을 토론한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과제 발굴과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도민 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이어가며, 제주의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민정 제주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